ORIGINAL ARTICLE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1;22:219~227 *http://dx.doi.org/10.5765/jkacap.2011.22.4.21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고명정[1] · 박은진[2] · 이대환[3] · 최영민[1] · 김봉석[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신과학교실,[2] 서울아이클리닉[3]

The Effect of Mother's Object Relation o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elf-Esteem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Myoung-Jung Ko, M.D.[1], Eun-Jin Park, M.D.[2], Dae-Hwan Lee, M.D.[3], Young-Min Choi, M.D., Ph.D.[1] and Bongseog Kim, M.D., Ph.D.[1]

[1]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3]Seoul I Clinic, Seoul, Korea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maternal object relations, child's and mother's perception on 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self-esteem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and their mothers.

Methods: 64 children with ADHD and their mothe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group.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85 children and their mothers. Mothers completed the following tests :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BO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Korean ADHD Rating Scale (K-ARS). Children completed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 and Rosenberg self-esteem scale.

Results: Mothers of ADHD children displayed more rejecting and controlling parenting style than mothers in the control group. ADHD children showed lower self-esteem and perceived their parents as not affectionate, but rejecting and controlling. Mothers with ADHD children who belonged to object relations pathological group showed more rejecting rearing attitude and their children believed that they were more controlling, compared with children and mothers in other conditions. Among factors in mother's object relations, insecure attachment and ego-centricity impacted the rearing attitude. In turn, affective rearing attitude mainly influenced children's self-esteem.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pproach focused on mother's object relations may help with the treatment of children with ADHD.

KEY WORDS: Object Relations · Rearing Attitude · Self-Esteem · ADHD.

서 론

인간은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 행동의 기준 및 가치판단의 척도를 습득하면서 통합적인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부모는 자녀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영향원이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성장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고 오랜 기간을 거쳐 강력한 관계로 발전하므로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지각하고 양육하는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은 만족과 성

접수완료 : 2011년 6월 2일 / 심사완료 : 2011년 7월 26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Bongseo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761-1 Sanggye 7-dong, Nowon-gu, Seoul 139-707, Korea
Tel : +82.2-950-1087, Fax : +82.2-936-8069
E-mail : kimbs328@paik.ac.kr
이 논문은 2010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 교수연구년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je Research and Scholarship Foundation in 2010).

취, 추구하는 가치와 긍지를 내면화 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은 일반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우울과 역기능적 사고의 경향이 높고 양육효능감이 낮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에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하고 강압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2] 또한 부모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ADHD 아동의 부모들이 다른 병에 속하는 아동이나 일반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더 큰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3] 이들은 자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명령과 지시를 주로 사용하며 통제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Hurlock[5]는 어머니 성격, 부부간의 행복, 아동의 성별, 자녀의 수, 문화적 가치, 경제적 능력을 들었으며, 다른 연구들에서는 우울장애를 비롯한 어머니의 정신병리가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6]

대상관계는 자아 기능의 한 측면으로 개인이 외부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를 의미한다. 초기 아동기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 내적 자기-타인 표상이 형성되고 이것이 현재의 경험의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7] Bowlby의 애착이론[8]에 의하면, 아이는 그들의 보호자 반응에 기초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보호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대인관계이론[9]과 대상관계이론[10] 모두와 일치한다. 즉,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능동적,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육자와의 대상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인간은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이룰 수 없고 이후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간관계는 자신의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부모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11]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의 경험, 대상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양육태도와 관계를 보여 세대 간 전이를 나타내게 된다.[12]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어려움이 단지 아이의 특성이나 현재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어려서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좋지 못한 양육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Winnicott[13]는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돌봄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대상관계에 따라 양육태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각각 인식하는 양육태도를 분석해 보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정상아동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ADHD 아동 치료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활용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ADHD 군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에 의해 ADHD로 진단받은 70명의 환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환아로 총 70명의 대상자 중 모든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64명을 분석하였다. 정상 대조군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아동 중 이전에 ADHD를 비롯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91명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아동 중 어머니가 작성한 한국어판 ADHD 평가척도가 19점 이상인 아동은 배제를 하였으며 모든 설문에 성실히 답변한 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절 차

ADHD 및 정상대조군의 아동과 어머니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개별적으로 자기-보고형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3. 도 구

1) 벨 대상관계 척도(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BORI)

Bell 등[14]은 대상관계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얻기 위해 45문항으로 된 자기보고 질문지(BORI)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번안된 한국판 대상관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7] BORI는 소외, 자아중심성, 불안정애착, 사회적 무능력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을 하게 된다. 소외(alienation, ALN) 척도는 기본적 신뢰의 부족, 가까운 관계형성의 불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친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측정한다.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 IA)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들은 거절에 매우 예민하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하여 지나친 관

심을 갖는다. 자아중심성(ego-centricity, EGC)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자기보호적이고 착취적인 태도를 지니며, 참견이 많고 강요적이며 요구적이다. 사회적 무능력(social incompetence, SI) 척도는 이성과 상호작용에서의 수줍음, 안절부절못함, 불확실성의 정도를 측정하며,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에서 병리적 수준의 절단점을 T 점수 60점으로 하였다.[7]

2)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Schaefer의 MBRI[15]로 Lee[16]가 번안하여 문항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고, Song[4]이 조정하고 Jang과 Yang[1]이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총 154문항으로 이루어진 MBRI를, Song[4]은 Schaefer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 축(love/reject)과 자율-통제 축(autonomy/controlling)으로만 제한하여, 두 개의 축으로 대별되는 4개의 하위요인(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을 가지는 4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Likert 방식의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5번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각 단계마다 1번부터 1, 2, 3, 4, 5의 점수를 주었으며,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1번 방향이 긍정적인 태도이므로 척도의 단계에 따라 1번부터 5, 4, 3, 2, 1의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다.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낮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문항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해석하였다.

3)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Children' 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CRPB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는 Schaefer가 CRPBI[17]를 제작하면서 부모 양육태도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26개의 변인들과 Oh와 Lee[18]의 검사를 참고로 하고, 현재 변화된 사회, 문화를 고려하여 Ahn[19]가 새롭게 구성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애정(love), 거부(reject), 자율(autonomy), 통제(controlling)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네 가지 영역은 각기 14개 문항씩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이다. 문항별 척도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수준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 SES)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으며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간결하게 이용할 수 있다.[20] 10문항 중 5개는 긍정적 문항이고 5개는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방식의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5)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eck 등[21]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BDI를 사용하였다.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 각 문항당 0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6) 한국어판 ADHD 평가척도(Korean ADHD Rating Scale, K-ARS)

K-ARS는 아동용 행동 평가척도로서 학령기 아동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척도는 DSM-IV의 ADHD 진단기준으로 이루어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은 아동의 행동의 심각도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 평정될 수 있다. 이 척도는 ADHD 아동을 정상아동으로부터 쉽게 변별해준다. 이를 토대로 번안된 K-ARS는 So 등[22]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enterprise guide 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의 차이 유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χ^2-test를 시행하였다. 각 군간의 BORI, MBRI, CRPBI, SES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ADHD 환자군에서 BORI와 MBRI, CRPBI, SES 간의 유의한 변인을 찾기 위해 partial correlations test를 시행하였다. ADHD 환아에서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ADHD 환자군 64명, 정상대조군 85명으로 총 149명이 참여하였다. ADHD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각각 대상관계 병리군과 대상관계 정상군으로 나누어 전체 4개의 군을 비교하였으며, 각 군의 인구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ADHD 환자군 중 대상관계 병리군(group 1)은 26명, 대상관계 정상군(group 2)은 38명이었다. 정상대조군 중 대상관계 병리군(group 3)은 18명, 대상관계 정상군(group 4)은 67명이었다. 각 군의 성별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ADHD 아동 집단이 대부분 남아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정상 대조군은 남녀 비율이 균등하였다. 어머니의 교육년수는 ADHD군(group 1 : 13.04±2.778, group 2 : 14.11±2.011)이 정상 대조군(group 3 : 14.44±1.886, group 4 : 14.75±1.770)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p=.005). 아동의 연령, 학년, 어머니의 나이, 결혼상태, 경제상태는 각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ADHD군과 정상대조군의 대상관계,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ADHD군과 정상대조군 간의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의 어머니에서 소외(p=.006), 사회적 무능력(p=.029)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ADHD 아동의 어머니의 우울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는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보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1).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는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거부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p<.001), 정상아동은 ADHD 아동에 비하여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1). 그리고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었다(p<.001)(Table 2).

3. 어머니의 대상관계 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ADHD군과 정상대조군 각각을 어머니의 대상관계 유형에 따라 대상관계 병리군과 대상관계 정상군으로 나누어 만들어진 4개의 군(group 1, 2, 3, 4)을 비교하였다(Table 3). 어머니의 BDI 척도는 group 1, 3이 group 2, 4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MBRI)에서는 group 2, 4가 group 1, 3에 비하여 보다 애정적이었고, group 4가 group 1, 2, 3에 비하여 보다 자율적이었다(p<.05). 그리고 group 1과 group 2만 다시 비교한 결과 group 1에서 보다 거부적인 양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χ^2-value	p-value
	ADHD (n=64)		Control (n=85)			
	PG (n=26)	NG (n=38)	PG (n=18)	NG (n=67)		
Child						
Sex (%)†					20.814	<.001*
Male	24 (92.3)	34 (89.5)	10 (55.6)	38 (56.7)		
Female	2 (7.7)	4 (10.5)	8 (44.4)	29 (43.3)		
Age (years)‡	10.65±2.966	11.45±1.969	10.78±3.671	10.24±2.764		.199
Grade‡	4.27±2.87	5.18±1.96	5.56±3.68	4.82±2.75		.484
Mother						
Age (years)‡	40.96±4.322	40.87±4.173	39.96±4.301	40.44±3.062		.403
Education (years)‡	13.04±2.778	14.11±2.011	14.44±1.886	14.75±1.770		.005*
Marital status (%)†					13.222	.153
Married	22 (84.6)	34 (89.5)	17 (94.4)	67 (100)		
Divorced	2 (7.7)	3 (7.9)	1 (5.6)	0		
Separated	1 (3.8)	0	0	0		
Bereaved	1 (3.8)	1 (2.6)	0	0		
Economic status (%)†					12.523	.052
High	2 (7.7)	2 (5.3)	4 (22.2)	17 (25.4)		
Medium	17 (65.4)	26 (68.4)	10 (55.6)	43 (64.2)		
Low	7 (26.9)	10 (26.3)	4 (22.2)	7 (10.4)		

* : p<.05, † : statistical test was done by χ^2-test, ‡ : statistical test was done by t-test. Group 1 : ADHD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2 : ADHD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3 : Control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4 : Control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PG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NG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ADHD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2. Comparison of ADHD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ADHD patient (n=64)	Control group (n=85)	t-value	p-value
Mother				
BORI				
ALN	53.91± 7.83	50.41±7.30	3.045	.006*
IA	46.48± 8.48	44.60±8.90	1.626	.194
EGC	51.73± 9.64	51.36±8.73	.222	.807
SI	50.69± 7.67	47.95±7.37	2.400	.029*
BDI	9.80± 8.81	5.99±6.76	2.891	.005*
MBRI				
Love/Reject	78.34±10.05	86.85±9.80	−5.345	<.001†
Autonomy/Controlling	72.45± 9.52	78.39±7.73	−3.827	<.001†
Children				
K-ARS				
Total	20.45±11.33	5.46±5.03	9.810	<.001†
Inattention	11.69± 6.30	3.68±3.23	8.974	<.001†
Hyperactivity-impulsivity	8.75± 6.06	1.78±2.22	8.977	<.001†
CRPBI				
Love	51.19±10.21	57.32±8.72	−4.032	<.001†
Reject	28.47±10.13	22.87±7.23	3.551	<.001†
Autonomy	46.67± 6.29	50.45±6.67	−3.498	.001*
Controlling	35.06± 8.88	32.65±7.84	1.510	.081
SES	28.58± 4.69	32.00±5.15	−4.039	<.001†

*: p<.05, †: p<.001. BORI: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alienation, IA: insecure attachment, EGC: Ego-centricity, SI: social incompetenc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Korean ADHD Rating Scale,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Self-Esteem Scale,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CRPBI)는 group 4가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덜 거부적이고 덜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5). group 1과 group 2만 다시 비교한 결과 group 1의 아동이 group 2에 비하여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49).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group 4가 가장 높았고(p<.05), group 2가 group 1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194)(Table 3).

4. ADHD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ADHD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 요인과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어머니의 나이, 결혼상태, 경제상태와 아동의 나이, 성별 등의 교란 요인을 통제하여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관계의 소외(ALN)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 척도와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으며, 불안정애착(IA) 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통제척도와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다. 자아중심성(EGC) 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 자율-통제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통제척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p<.05)를 보였으며, 사회적 무능력(SI)척도는 어머니의 우울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는 대상관계 항목 중 불안정애착(IA)이, 자율-통제척도는 자아중심성(EGC)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거부척도와 통제척도는 대상관계 항목 중 자아중심성(EGC)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다(Table 5).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거부척도, 아동이 인식하는 양육태도 중 애정척도가 주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Table 6).

고 찰

ADHD는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 중 하나로 가정상황, 부모의 정신병리,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같은 환경적 특성은 ADHD 증상의 심각도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ADHD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함께 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 부모교육 등이 있다. ADHD에서 약물치료와 부모교육을 병행하였을 때 행동문제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ADHD 치료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교육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Table 3. Comparison of MBRI, CRPBI, SES

Variables	Group 1 (n=26)	Group 2 (n=38)	Group 3 (n=18)	Group 4 (n=67)	F	Post-hoc
Mother						
BORI						
ALN	60.81± 5.52	49.18± 5.23	59.28± 8.23	48.03±4.83	46.790†	1, 3>2, 4*
IA	52.08± 8.88	42.66± 5.68	52.56±11.02	42.46±6.90	16.976†	1, 3>2, 4*
EGC	57.35±10.65	47.89± 6.67	61.11± 8.95	48.75±6.60	19.686†	1, 3>2, 4*
SI	56.04± 6.85	47.03± 5.88	57.50± 7.18	45.39±4.93	35.272†	1, 3>2, 4*
BDI	16.27± 9.51	5.37± 4.66	12.50±10.60	4.24±3.83	27.094†	1, 3>2, 4*
MBRI						
Love/Reject	73.92±10.26	81.37± 8.81	73.39± 8.92	89.12±8.78	20.746†	1, 3<2, 4*
Autonomy/Controlling	70.81±11.73	73.58± 7.62	73.50± 6.25	79.70±7.60	9.363†	1, 2, 3<4*
Children						
K-ARS						
Total	23.35±13.17	18.47± 9.56	7.67± 5.02	4.87±4.91	43.091†	1, 2>3, 4*
Inattention	13.12± 7.35	10.71± 5.56	5.17± 3.22	3.28±3.14	36.932†	1, 2>3, 4*
Hyperactivity-impulsivity	10.19± 7.09	7.76± 5.12	2.50± 2.31	1.58±2.18	34.501†	1, 2>3, 4*
CRPBI						
Love	50.58±10.00	51.61±10.47	50.22±12.16	59.22±6.43	10.396†	1, 2, 3<4*
Reject	30.15±10.27	27.32±10.01	27.50±10.68	21.63±5.46	8.288†	1, 2>4*
Autonomy	47.04± 6.34	46.42± 6.33	47.89± 6.96	51.13±6.48	5.371*	2<4*
Controlling	37.69± 9.22	33.26± 8.28	34.22± 8.43	32.22±7.69	2.828*	1>4*
SES	27.65± 4.44	29.21± 4.80	27.83± 6.33	33.12±4.18	13.068†	1, 2, 3<4*

*: p<.05, †: p<.001. Group 1: ADHD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2: ADHD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3: Control group & pathologic group of object relation, Group 4: Control group & normal group of object relation, BORI: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alienation, IA: insecure attachment, EGC: Ego-centricity, SI: social incompetenc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Korean ADHD Rating Scale,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Self-Esteem Scale,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4. Partial correlation between ADHD group

	ALN	IA	EGC	SI	K-ARS	BDI	MBRI1	MBRI2	SES	CRPBI1	CRPBI2	CRPBI3	CRPBI4
ALN	1												
IA	.536*	1											
EGC	.421*	.503*	1										
SI	.676*	.481*	.286*	1									
K-ARS	.008	.234	.315*	.133	1								
BDI	.613*	.537*	.566*	.462*	.205	1							
MBRI1	−.358*	−.410*	−.356*	−.196	−.368*	−.417*	1						
MBRI2	−.102	−.230	−.328*	−.115	−.346*	−.274*	.608*	1					
SES	−.242	−.213	−.381*	−.173	−.280*	−.444*	.385*	.379*	1				
CRPBI1	−.072	−.082	−.153	−.033	−.152	−.174	.271*	.232	.396*	1			
CRPBI2	.167	.089	.244	.076	.311*	.137	−.329*	−.275*	−.338*	−.640*	1		
CRPBI3	.072	.088	.046	.075	−.058	.032	.190	.369*	.308*	.601*	−.306*	1	
CRPBI4	.187	.255*	.381*	.132	.367*	.234	−.503*	−.429*	−.298*	−.459*	.789*	−.241	1

*: p<.05. r: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djusted by mother's age, marital status, economic status, child's age, sex, grade. ALN: alienation, IA: insecure attachment, EGC: Ego-centricity, SI: social incompetenc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K-ARS: Korean ADHD Rating Scale, 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SES: Self-Esteem Scale, MBRI1: Love/reject, MBRI2: Autonomy/controlling, CRPBI1: Love, CRPBI2: Reject, CRPBI3: Autonomy, CRPBI4: controlling,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MBRI, CRPBI as dependent variable and BORI a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R^2	Adj. R^2	F	t	p
MBRI									
Love/reject	BORI (IA)	−0.409	0.141	−0.345	0.119	0.105	8.399*	−2.898*	.005
Autonomy/controlling	BORI (EGC)	−0.305	0.119	−0.309	0.095	0.081	6.552*	−2.560*	.013
CRPBI									
Love	–	–	–	–	–	–	–	–	–
Reject	BORI (EGC)	0.279	0.129	0.266	0.071	0.056	4.716*	2.172*	.034
Autonomy	–	–	–	–	–	–	–	–	–
Controlling	BORI (EGC)	0.355	0.108	0.386	0.149	0.135	10.828†	3.291†	.002

∗ : p<.05, † : p<.01. BORI : Bell object relation inventory, ALN : alienation, IA : insecure attachment, EGC : Ego-centricity, SI : social incompetenc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β : standardized coefficient,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able 6.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childen's self-esteem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CRPBI as independent variables

Step	Variable	B	S.E	β	R^2	Adj. R^2	F	t	p
1	MBRI (Love/reject)	0.171	0.055	0.367	0.135	0.121	9.680**	3.111	.003
2	MBRI (Love/reject)	0.138	0.055	0.296	0.216	0.190	8.394*	2.527	.014
	CRPBI (Love)	0.135	0.054	0.293				2.507	.015

∗ : p<.05, ∗∗ : p<.01. SES : self-esteem scale, MBRI :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CRPBI :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 standard error, β : standardized coefficient,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 R^2 :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tep 1 :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subscales as independent variables, Step 2 :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SES as dependent variable and MBRI subscales, CRPBI subscales as independent variables

것이다. 이전 ADHD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특성으로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나 우울성향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상관계와 관련된 것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고, ADHD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5]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볼 때 ADHD 아동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상관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ADHD 아동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태도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일반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ADHD 아동의 치료에서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ADHD 아동의 부모는 강압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으며 아동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며, 정상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덜 온정적이고, 덜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리고 이런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7]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28]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상아동에 비하여 ADHD 아동에서 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ADHD 아동의 어머니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들 또한 덜 애정적이며 거부적이고 덜 자율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ADHD 아동들은 정상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척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상관계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ADHD 아동군 중 대상관계 병리군(group 1)의 어머니가 보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들은 통제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ADHD 아동에서 보다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더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상관계에 따른 양육태도의 변화는 정상아동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정상아동군에서도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아동들 또한 거부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전체 4개 군을 같이 비교하였을 때는 정상아동이며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정상수준일 때 가장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한 가장 높았다. 이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ADHD 아동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초기대상관계와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아 및 부모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애착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29] 그리고 Strand 등[3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 중 소외, 불안정한 애착, 자아중심성이 무분별한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그녀 자신의 자기(self)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사람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고 자녀의 행동을 잘 조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의 경험, 즉 대상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 양육행동과 관계를 보이며 세대 간 전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대상관계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ADHD 아동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 척도 중 불안정애착과 자아중심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ADHD 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정상아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대상관계를 알고 자신이 어떤 양육태도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약물치료와 함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치료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ADHD 아동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시행할 때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고려한 접근을 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부모, 자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ADHD 아동에서 대부분 남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별에 의한 효과를 통계분석시 성별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인지적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에 있어 증상심각도나 가정환경 등 다른 변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상관계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ADHD 아동과 정상아동에서 비교하였다. ADHD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하여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고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관계 병리군에서 더욱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ADHD 아동의 치료에 있어 어머니의 대상관계를 고려한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대상관계 · 양육태도 · 자아존중감 · ADHD.

References

1) **Jang MK, Yang SM.** The effects of mother's awareness of disorder, child-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with ADHD. J Emot Behav Disord 2005;21:163-188.
2) **Choi YY, Kim JH, Cho SM, Hong SD, Oh EY.** The effect of ADHD child mother's depressive moo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related attitude on parenting behavior.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2;13:153-162.
3) **Ahn DH, Kim JY, Koh BJ, Sa SU, Lee SE, Lee YK, et al.** Parenting stress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nt Health Res 2001;20:128-136.
4) **Song HK.** A study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only child's mothers and two or multiple children's mothers. Seoul: Duksung Women's Univ.;2004.
5) **Hurlock EB.**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cGraw Hill Publication;1981.
6) **Kim MK, Yun KW, Kang KM, Kim YK.** Rearing pattern of mothers with affective disorder and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3;42:360-367.
7) **Park BH, Lee YH.**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object relations inventory. J Korean Clin Psychol 2004;23:1065-1084.
8) **Bowlby J.** A secure base: Pati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1983.
9) **Sullivan H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1953.
10) **Greenberg JK, Mitchell SA.**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1983.
11) **Chun KH.** The effect of mother's early object relation for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self-esteem. Seoul: Konkuk Univ.;2004.
12) **Jang MJ, Choi BH.**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of relationships and infant attachment patterns. Korean J Child Stud 1999;20:147-164.
13) **Winnicott DW.** Playing and reality. Mark Paterson and Associates; 1971.
14) **Bell M, Billington R, Becker B.**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J Clin Psychol 1986;42:733-741.

15) **Schaefer ES, Bell RQ, Bayley N.**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 Genet Psychol 1959;95:83-104.
16) **Lee OH.**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Seoul: Ewha Women's Univ.; 1983.
17) **Schaefer ES.** Children's rep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 1965;36:413-424.
18) **Oh SS, Lee J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KIRBS Research Notes 1982;11:1-15.
19) **Ahn H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1999.
20) **Choi BG, Jeon GY.**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 (I). J Korean Home Econ Assoc 1993;31:41-54.
21) **Beck A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1967.
22) **So YK, Noh JS, Kim YS, Ko SG, Koh YJ.**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Parent and Teacher ADHD Rating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283-289.
23) **Shin WS, Choi HR, Kim KW, Lee JS, Park SB, Hong JP, et al.** Association of the symptom of parental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the parental personality patterns with the symptoms of boy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9;20:23-28.
24) **Kim SS, Ahn DH, Lee YH, Ahn DH.** The effects of the combined treatment of medication and parent trai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8;37:683-699.
25) **Yu SM, Kim BS.** The correlation among maternal object relation, personality and symptom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9;48:474-480.
26) **Kim SY, Hwang JW, Kim BN, Cho SC, Shin MS.** Parents' rearing attitude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depressive disorder.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8; 19:175-181.
27) **K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 in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 Res 2005;53:63-88.
28) **Kim KY.** The Relation of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Pusan: Pusan Univ.;1987.
29) **Belsky J.**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 1984;55:83-96.
30) **Stand PS, Wahler RG.**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J Clin Child Psychol 1996;25:43-51.